

시즌의 멀도를 차마 볼 수 없어 사리불은 먼저...

불전속 신이한 이야기 (20)

사리불의 열반(상)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물으셨다.
 “4신족(神足)을 얻으면 1겁 동안 더 살 수 있다. 여려는 이제 얼마나 더 살면 되겠느냐?”
 부처님께서 여러 번 물으셨는데도 아난이 악마에게 홀려 대답하지 않자 부처님께서는 다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고요한 데로 가서 조용히 생각해 보아라.”
 아난이 일어나 숲으로 갔다.
 그때에 악마 파순이 부처님께 와서 말했다.
 “시즌이시여 세존께서 세상에 계시면서 교화를 펼치시어 중생들을 두루 제도하여 생사를 벗어난 이들의 수가 황하의 모래만큼이나 많습니까. 이제 나 이도 늙었다고 하니 그만 열반에 드셔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악마에게 말했다.
 “석 달 후에 열반할 것이다.”
 파순은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면서 돌아갔다.
 아난이 자다가 꿈을 꾸었다.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넓게 허공을 덮고 있어서 온갖 싹들이 다 그 나무를 의지하며 은혜를 입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회오리바람이 일어나더니 그 나무에 불어와 거세게 때리는 것이었다. 그렇게 나무는 역사(力士)가 살고 있는 땅에서 사라져 버렸으니, 모든 중생들이 슬퍼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아난이 깜짝 놀라서 깨어났다. 두려워서 도무지 마음을 안정할 수가 없었기에 꿈꾼 것을 생각해 보았다.
 ‘장차 세존께서 열반하려 하시는 것은 아닐까?’
 아난은 바로 부처님께 가서 여쭙었다.
 “제가 아까 이러한 꿈을 꾸었습니다. 장차 세존께서 열반하려 하시는 아니십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말 그대로이다. 나는 이제 석 달 후면 열반할 것이다. 내가 아까 너에게 묻지 않았더니? 여러 번 물었는데도 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때 악마 파순이 내게 열반할 것을 권하기에 내 허락했다.”
 아난은 비통해 하며 어쩔 줄 몰랐고, 그 제자들은 서로에게 전하여 저마다 슬퍼하면서 부처님께로 왔다.
 “누군들 항상 살아있겠느냐? 나는 저희들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은 다하였고, 해야 할 말은 다 말하였다. 너희들은 다만 부지런히 닦고 정진하면 되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걱정하느냐?”
 사리불은 부처님께서 열반하신다는 말을 듣고 탄식했다.
 “저는 세존께서 멀도하시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제가 부처님보다 앞서 열반하려 하오니, 오직 원한건대 세존께서는 허락해 주십시오.”
 사리불이 여러 번 간청하자 세존께서는 말씀하셨다.
 “마땅히 때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모든 성현들이 다 이렇듯 고요히 사라졌다.”
 사리불은 이내 의복을 정돈하여 떠나갔다. 사미 군례를 데리고 본생에서 이르자 군례에게 명했다.

“너는 지금 성에 들어가 마을마다 고하거라. 국왕과 대신, 그리고 오랫동안 사귀어 온 도반들에게 이별을 하고 전하거라.”
 군제는 널리 알렸다.
 “화상 사리불께서 이제 열반에 들러 하십니다. 만나고 싶은 이들은 때를 놓치지 말고 지금 가도록 하십시오.”
 아사세왕과 신하들이 모두 달려갔다. 사리불은 사람들을 위하여 법을 설했다. 모인 사람들 중에는 초과를 얻은 이도 있었고, 3과를 얻은 이가 있었으며 혹은 출가하여 아라한이 된 이도 있었으며, 또 마음에 불도를 구하기를 맹세하는 이도 있었다. 사리불은 다음날 새벽녘에 몸을 정돈하고 초선에 들었다. 초선으로부터 일어나서는 다시 제

아난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옛날의 일들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자 부처님이 아난의 마음을 읽고 그 옛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그 옛날의 이야기다.
 과거의 오랜 옛날, 생각이 할 수 없는 겁 동안에 이 영부제에 한 국왕이 있었는데, 이름은 월광왕이었다. 왕에게는 2만의 부인과 하며, 1만의 대신이 있었다. 첫째부인의 이름은 수마단이었다고, 대신의 수장은 마전타였다. 왕에게는 또 5백의 태자가 있었는데, 첫째가 시라발타였다. 왕이 머무르고 있던 성의 이름은 발타기바였는데 그 성의 길이와 너비는 4백 유순이었으며, 둘레는 자그마치 120개의 문이 있었다. 왕은 성 안의 창고를 열어 어렵고 힘든 사부대중에게 많은 곡식과 보화를 보시했다.



삼화 · 강병로

2선에 들어갔으며, 이렇게 차례대로 멸진정(滅盡定)에 들었고, 멸진정으로부터 일어나서 열반했다. 그때 천제석은 많은 하늘 대중과 함께 그곳에 와서 찬탄하고 공양했다. 제석은 또 비수갈마에게 명하여 갖가지 보배를 모아다 높은 수레를 장엄하고서 편편한 넓은 땅으로 보내도록 했다. 또 아차들에게는 해변으로 가서 우두전단(牛頭檀)을 가져다 크게 장작더미를 쌓아 만들게 했다. 대비가 끝나자 군제는 사리를 수수해 발우 안에 담았다. 그리고 3의(夜)도 거두어 메고 부처님께 이르렀다. 아난이 슬퍼하며 말했다.
 “법륜의 상수께서 벌써 열반하셨으니, 나는 누구를 믿고 의지할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가 지금 비록 멀도하셨지만 5분법신(分法身) 부처님과 아라한이 갖추어 가진 다섯 종류의 공덕으로 戒 · 定 · 慧 · 解脫 · 解脫知見은 멀하지 않았다. 사리불은 과거 세상에서도 역시 내가 죽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었기에 나보다 앞서 먼저 죽었다.”

영부제의 백성들은 거의 모두 왕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
 한편, 어느 한 작은 나라가 있었다. 그 나라의 비마사나라고 하는 왕은 월광왕에 대한 아름다운 칭송이 높고 큰 것을 마음에 시샘이 생겨 마음이 늘 편지 않았다.
 “월광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나는 마음 편히 살 수 없을 것이다. 뭔가 수를 써야겠다.”
 비마사나왕은 여러 도사를 청하고 여러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그 중한 바라문이 말했다.
 “왕께서는 무슨 근심이 있으시기에 이렇게 널리 사람들을 부르셨습니까?”
 왕이 말했다.
 “저 월광왕의 명성과 덕망이 멀리까지 뻗어 있어서 모두가 교화를 받았는데, 나만 홀로 비무하게도 이런 아름다운 칭송이 없습니다. 그를 제거하고 싶은데 무슨 방편이 없었습니까?”
 동국대역경원 발행 <경률(이상)에서 발행 재구성
 구성=박재환 기자 wanhollo@hyunbul.co

이대원성 보살의 바라밀 일기 20



5월에 드는 생각들

사라진 옛 집을 생각하며
 우리 아파트에서 내려다보이는 이웃마을은 오래 전부터 재개발 지역이라고 소문이 나서 늘 시끄러웠다. ‘재개발’이라는 게 시작하기까지도 그렇고, 시작을 하고나서도 그렇고 모든 게 쉽지 않은 일이다. 아무튼 얼마 후 재개발이 시작되었다. 그곳엔 예전에 내가 살던 집도 있다. 그 집엔 부처님을 모셨었다. 매일 기도도하고 많은 스님들과 도반들이 모여 법회도 열고 했던 곳이다. 추억이 많은 집이다. 어느 날, 외출하려 나와 보니 드디어 그 집이 철거되고 있었다. 반쯤 헐려나간 집을 바라보고 있으니 만감이 교차했다.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보니 집은 완전히 사라지고 없었다. 내가 심었던 나무들 몇 그루만이 남아 있었다. 옛날 생각들이 떠올랐다. 오랜 세월 동안 있고 살았던 이웃들이 하나 둘 떠돌았고, 그들과 웃고 울고 지냈던 그 시절이 떠올랐다.
 며칠 후 그 동네는 내가 살던 집뿐만 아니라 나머지 집들도 모두 철거됐다. 허허 벌판이 되어버린 빈터에 옛날 동네의 풍경이 그려졌다. 김 씨네, 박 씨네, 파란 대문 집, 철 대문 집, 통장 집, 반장 집... 우린 그렇게 부르며 살았다. 모두 어디로 갔을까.

즈음하여 고통을 이기시는 어머니 은혜, 자식을 낳고 근심을 잊는 은혜, 쓴 것을 삼키고 단 것만 먹이는 은혜, 진자리 마른자리 가려 누이는 은혜, 젖을 먹여서 기르는 은혜, 손발이 닳도록 깨끗이 씻어주시는 은혜, 먼 길을 떠나갈 때 걱정하시는 은혜, 자식을 위하여 나쁜 일까지 짓는 은혜, 끝까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주는 은혜, 절절히 가슴에 와 닿는 부모의 은혜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자라는 우리들의 아이들이나 또 젊은 부모들에게는 생소한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부모님의 조건 없고, 끝없는 은혜이리라. 지금의 엄마들은 진자리 마른자리를 말 할 필요조차 없는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기르고 또 손발이 다 닳도록 지켜주기 빠는 일도 없다. 쓴 것은 삼키고 단 것은 먹여주는 그런 일도 굳이 필요없다. 지극한 사랑이란 지금이 더 극성일 것 같다. 그러나 부모 마음을 어찌 저울로 달까. 60을 넘긴 내 젊은 날에만 해도 은중경의 말씀대로 손으로 빨래하고 천기저귀를 말리기를 당연하게 여겼지만 지금은 뽕송뽕송한 옷과 같은 기저귀로 손에 물을 넣지 않아도 아이를 키우는 시대가 되었으니 이제 새로운 은중경을 말 할 때가 되었을까? 내가 어릴 때 우리 엄마들은 그야말로 진자리 마른자리 같이 누이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고생으로 키우셨다. 밥엔 배를 앓아 무명천을 짜고 낮이면 삼시 세끼 새 밥을 지어 어른 모시고 돌일이다 발일이다 눈코 뜰 새 없이 살았다.

한 사람 맑은 생각이 만 사람 맑게해 시대 변해도 엄마의 '사랑'은 영원

모두 잘 살고 있을까. 이 생각 저 생각에 가슴 한 구석이 몽글 몽글 했다. 평소 자주 외우던 법성계가 떠올랐다.
 ‘일중일체다중일(一切中一切多中一) 하나 가운데 모두가 있고, 일즉일체다즉일(一即一切多即一) 모두는 하나로부터다. 한 티끌 속에 세계를 머금었고, 낱알의 티끌마다 우주가 다 들었네. 한없는 긴 시간 한 생각이요 찰나의 한 생각이 무량한 겁이니.’
 한 사람의 맑은 생각이 만 사람을 맑게 하고, 한 사람의 맑지 못한 생각이 만 사람을 괴롭게 할 수 있음이다. ‘나’라고 하는 ‘하나’가 소중하지 않을 수 없다. 텅 빈 옛 동네엔 더 많은 집들이 다시 세워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다. 그 많은 ‘모두’는 ‘나’에서 시작된다. ‘나’를 함부로 할 수 없음이고, 그 ‘나’가 하는 생각과 행동이 허잖은 것일 수 없음이다. 텅 빈 옛날 동네에 봄 햇살이 비추는 것을 보고 부처님의 범피도 햇살처럼 우리 중생들에게 항상 내려 주시라고 기원했다.

생각하면 생각 할수록 그리움 속에 슬픈 사연이 꼬리를 물고 가슴이 저려오지만 정작 그 고생 다 느끼고 그 품에 안겨 싶을 울고 싶지만 그 모습은 어디에도 볼 수가 없으니, 아 나의 어머니, 이런 늦은 나이에 용서를 구하다니. 어머니! 참 애썼던 우리 어머니 지금은 저도 늙었답니다. 그 곳이 어딘지 엄마가 있는 곳에서 우리 다시 만나 알아 볼 수 있다면 손잡고 안기어 지난 날 철없었던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할 텐데, 그리고 그때 못한 효도도 실컷 하면서.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어버이날에
 엄마라는 단어에는 나이가 상관이 없나보다. 내 나이 70이지만 ‘엄마’라는 단어 앞에서는 아직도 목이 메고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며칠 전 어버이날이 지나갔다. 나는 네 명의 자식을 둔 부모이며 6명의 손주들 둔 할머니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작 내 가슴속엔 나의 엄마 아버지께 그림고 보고 싶다. 그렇지만 어버이날이면 엄마가 보고 싶다. ‘엄마’라고 가슴으로 부르면 이내 눈물이 쏟아진다. 어쩔 수가 없다. 엄마, 엄마가 보고 싶다. 엄마의 얼굴을 만지고 싶고, 엄마의 손 한 번 잡고 싶다. 그리고 엄마 품에 안겨서 잠들고 싶다.
 지금 엄마가 그토록 보고 싶은 마음이 ‘불효’였으리라. 한 자 한 자 의미를 새기며 정성을 다해 썼다. 어머니 품에 품고 지켜 주는 은혜, 해산날에 부산 연꽃모임회장

일반인과 수행자를 위한 행복 지침서
마음의 안락과 열반을 성취하는 실천수행

보시 · 지계 · 출리 · 지혜 · 정진
 인욕 · 진실 · 결의 · 자애 · 평온
바라밀!

수행성취의 열 가지 조건, 심바라밀
행복에 이르는 열 가지 습관
 Sujin Boriharnwanaket 저/정명성님 역
 신국판 | 흑백 | 368쪽 | 13,800원
 *전국 서점과 인터넷에서 판매

괴로움의 소멸, 열반 증득을 위한 수행성취의 조건

불교에서는 괴로움이 소멸된 상태를 님바나(열반)라고 하는데, 열반을 증득하려면 필요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조건이 바로 심바라밀이다. 수행의 성취는 열심이란 한 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조건을 만나야만 이뤄진다. 그래서 구도자는 그 조건이 무엇이고 나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안 다음에 하나하나 이 조건들을 충족시켜 나가는 것이다. 태국의 명상수행가인 Sujin Boriharnwanaket는 니까야 가운데 소부(小部)의 소승(小乘) 및 불소행장(佛所行藏)과 그 주석서를 근거로 부타의 수행법을 제시한다.

김천 정성사 www.junmyeong.com 054-434-9090
 비룡소출판 및 법공양(특별회원) 문의 02-2632-8739

빙의 퇴마사례 생생하게 전하고 그 해결방법 밝혀 !!!

빙의에 걸리면 정신질환인 우울, 불안, 공포증, 또는 조울증, 정신분열 등 심인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괴로워한다. 심지어 요즘엔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흔해졌다. 이로 인해 정신질환자뿐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희망이 없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제행 지음 / 신국판 / 319페이지 / 13,000원

이 책은 심인성질환의 치유와 퇴마의 권위자인 제행스님이 그간 치유했던 사례들을 담은 책이다. 스님은 마음의 빙은 첫째, 지난 삶은 과정에서 잠재되어 오고 둘째, 전생으로부터 잠재되어 오고 셋째, 빙의되어 온다고 정의하고 있다. 특히 빙의 상태에 빠진 사람들을, 최면을 통해 퇴마했던 그 과정을 이번 책에 생생하게 담았다.

* 전국 유명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 있습니다.
 * 입금계좌 : 농협 552-01-047918 대한불교비룡정사

역학·빙의 퇴마 (개인지도, 직접 상담)

- * 상담 : 1. 사주상담, 궁합, 택일, 신생아 이름, 개명, 부분문제 2. 최면심리상담, 우울, 불안, 공포증, 빙의 퇴마, 환청 3. 무속인 상담, 말문이 안터지는 분, 허주, 법당정리
- * 개인지도 : 역학(기문둔감), 성명학, 최면요법과 빙의 퇴마
- * 서울 지하철 2호선 방배역 3번출구, 7호선 내방역 3번출구

비룡정사 서울 포교당 제행스님
 011-772-4606 / 02-588-4606

초절전형 슈퍼에너지 전기보일러
전국 사찰 300여곳 시공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절감

에너지 전문 컨설턴트
무료상담
 대환영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태양광 발전사업 최고의 안정성·수익성

노후에 “연금이 따로 있다? 태양광이 연금이다!!”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사업은 개인에게 사업권을 부여하여 안정적 소득 창출과 향후 노후대책은 물론 지속적으로 수입을 12년 동안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 50kW 발전 기준시 년소득 약 3,000만원 (불자우대)
 내일처럼 열심히 하겠습니까 **慧峰** 합장

직통 011-335-6389
 대표전화 1688-5687

참 건강 생활 회원모집

참건강 생활의 등대지기로 여러 불자님들께 정신과 육체적 편안함과 쉽고도 확실한 건강요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연건강요법과 생명파동의 놀라운 위력과 신비함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특전 및 교육과정

- 회원특전
 - 1) 맞춤형 개인 건강관리
 - 2) 현재 건강상태 점검 (파동요법), 척추교정
 - 3) 주거환경탐사 (수맥파 유해전자파)
 - 4) 자연건강 운동법, 맞춤형 자연식생활법.
 - 5) 경제적 수익사업
- 교육내용
 - 1) 자연건강법 강의 (매일 오후 2-3시)
 - 2) 건강운동법 (6대 법칙 실습교육)
 - 3) 파동통정 탐지법
 - 4) 척추건강요법
- 파동의학 전문지도교수 : 박철용
 現 하와이호놀룰루 대학 / 자연의학과 교수(초능력) 수맥과학대학 (파동학교수) 한국자연건강회(이사) 건강지도사 1급 자격.

상담 및 문의 02)739-5008, 010-2353-2010
 서울 종로구 수송동 두산위브 440호